

한국농어촌공사 익산지사, '말해농' 보급...농지은행 접근성 높인다

✎ 엄범희 기자 | ⓒ 승인 2026.09.23 14:53

- 농지은행 방문 고객 대상 QR부터 서비스 조회까지 1대1 맞춤형 체험
- 음성인식·간편한 화면으로 농지 매매·임대차·신청 현황 등 정보 제공



[투데이안] 한국농어촌공사 익산지사가 농업인의 편의성을 높이고 농지은행 사업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모바일 앱 '말해농'의 현장 보급에 나섰다.

익산지사는 농지은행 상담과 신청을 위해 지사를 방문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말해농' QR코드 스캔부터 기본 사용법, 실제 서비스 조회까지 직접 체험할 수 있는 1대1 모바일 동행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말해농’은 디지털 기기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 농업인과 바쁜 농업 현장의 특성을 고려해 전북 지역본부에서 자체 개발한 모바일 서비스다.

음성인식과 간편한 화면 구성을 통해 농지은행 주요 사업 정보와 농지 매매·임대차 안내, 신청 현황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방문 고객들은 직원들의 안내에 따라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한 뒤 음성으로 관심 지역의 농지은행 담당자 연락처와 필요 서류 등을 확인하며 서비스를 직접 체험하고 있다.

한 농업인은 “평소 스마트폰으로 글자를 치거나 검색하는 게 번거로웠는데, 말 한마디로 농지은행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 훨씬 편리하다”고 말했다.

익산지사 관계자는 “농업인들이 농지은행의 다양한 혜택과 사업을 몰라서 놓치는 일이 없도록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사 방문 고객을 대상으로 1대1 안내를 강화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말해농’ 앱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익산지사는 지역 농업인 단체 행사와 현장 방문 상담에서도 ‘말해농’ 활용법을 지속적으로 안내하며 디지털 기반 농지은행 행정서비스 정착에 힘을 기울일 계획이다.



엄범희 기자 bhaum2730@naver.com